

시원한 대숲 풍광... 화려한 영상 뱀부쇼 감탄사 연발

미디어 데이... 미리 본 박람회장

“전 세계 어떤 박람회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양에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세계 유일의 박람회를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15일 만난 최형식 담양군수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최 군수는 “이번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담양군청 직원들과 군민 모두가 헌연일체가 돼 준비했다”면서 “정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담양 대나무의 녹색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군수의 자신 가득한 말은 호연이 아닌 듯했다. 이날 담양군이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개최한 미디어 데이에 참석한 취재 기자단의 입에서도 ‘와~’하는 탄성들이 터져 나왔다.

박람회장 곳곳을 소개하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표정과 목소리에서도 성공을 확신하는 자신감이 가득 배어났다.

이날 미디어 데이 안내에 따르면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는 크게 3곳의 공간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첫 번째로 눈길을 사로잡는 곳은 박람회의 주인공인 대나무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주제체험구역이다. 광주·전남의 대표 관광명소인 죽녹원을 박람회장의 체험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곳이다.

녹색 대나무 숲길 및 야외에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박람회장이 한눈에 보이는 봉황루가 나타난다. 봉황루에서는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천연 웰빙 바람으로 풍욕을 즐기며 시원한 대숲의 풍광도 담아갈 수 있다.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등 대숲 사이로 뚫린 샛길 중간 중간에는 담양대나무관, 이이남 아트센터, 오감체험관 등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이남 아트센터는 담양 출신인 이 작가의 대나무를 주제로 한 수준급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배치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자연 속 대나무를 체험한 관람객의 발길은 동선에 따라 두 번째 박람회 공간인 주제전시구역으로 이어진다.

주제전시구역 정보에는 대나무로 만든 웅장한 봉

주제관 대나무의 모든 것 한눈에

담양 출신 이이남 미디어작품 눈길 친환경·경제 박람회 ‘대박 예감’

황과 지구본 상징조형물이 손님을 맞는다.

상징조형물 정면으로 보면 왼쪽에는 박람회의 ‘킬러 콘텐츠’인 뱀부쇼 공연장이, 오른쪽에는 각종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조직위가 자신 있게 내세운 뱀부쇼는 박람회의 메시지와 의미를 옛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 홀로그램 영상쇼를 화려하게 펼친다. 이날 뱀부쇼를 지켜본 한 취재 기자는 “여수 엑스포의 대표 공연인 ‘빅오쇼’보다 뛰어나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특히 시야를 압도하는 홀로그램과 서정적 노래와 어우러진 가상의 홀로그램 영상은 손을 대면 달을 듯한 생생한 감동도 선사했다.

주제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대나무 품종과 대나무 공예품, 대나무로 만든 가옥 등을 바로 눈앞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공간인 체험교육구역에서는 박람회 기간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날 사전공개 행사에서 곳곳을 소개한 조직위원회 측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열린 다른 어느 박람회 못지않게 풍성한 전시물과 행사로 가득 채웠음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도 “대나무 숲을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하는 친환경 박람회, 규모보다 콘텐츠로 경쟁하는 강한 박람회,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경제적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담양군과 산림청, 전남도가 공동주최하는 국제 행사이며, ‘대숲에서 찾는 녹색미래’를 주제로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죽녹원 및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 입장권을 가진 관람객은 박람회 기간 대나무박물관, 메타세쿼이아 길, 소쇄원, 가사문학관, 가마골 생태공원 등 담양 주요 관광지 등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의 미디어 데이가 열린 15일 관람객들이 담양군 죽녹원 내 봉황루에서 박람회장을 내려다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

◀15일 오전 사전 공개된 ‘2015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 뱀부쇼장 앞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다.

담양군·경찰·소방서 ‘안전 박람회’ 총력전

담양군은 15일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안전관리계획수립안에 따른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박람회장 안전관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최근 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인 홍성일 담양부군수를 비롯한 경찰서와 소방서, 군 실과장 등 심의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심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박람회 안전관리종합대책계획에 대한 박람회조직위 설명을 들은 후 실무위원들의 문제제기 제시와 그에 따른 대책 논의가 이어지는 등 안전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막식과 폐막식 공연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했으며, 안전관리요원 책임담당구역 지정,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행과 교통, 보건, 소방, 주차, 태풍 및 호우 등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도 함께 논의됐다.

홍성일 부군수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며 “특히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행사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박람회조직위-전남문화예술포럼 문화나눔 통한 성공 개최 협약

전남문화예술포럼과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최형식)는 지난 14일 제단 문화마당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나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제단과 조직위원회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관연계 홍보 추진 및 전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연계 프로그램, 문화나눔 및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형식(왼쪽 네번째) 담양군수와 오영상(다섯 번째) 전남문화예술포럼 사무처장이 지난 14일 전남문화예술포럼 문화마당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전남문화예술포럼 제공>

오영상 제단 사무처장은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제단에서 문화예술포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도민들이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서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김농 Set

다담 Set

우전갈문

김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명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1. 지정 품목: 차(녹차)
 2. 명인명: 오영상(오영상)
 3. 명인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영리 오영1길 10-1 (오영농장)
 4. 명인직업: 차 생산자
 5. 명인경력: 차 생산 60년 이상
 6. 명인특성: 차 생산 60년 이상 차 생산자로서 차 생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2015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